화성바이오팜 공장 건설공사 차질

공사대금 지급 갈등으로 현장공사 중단 … 체불임금 지급 현수막도

충북 제천시 제천바이오밸리에 조성중인 화성 바이오팜 제천공장의 시공사 대표가 잠적하는 등 공장 준공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제천시에 따르면, 화성 바이오팜과 시공사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하면서 시공사가 7월 중순부터 현장공사를 중단했다.

화성 바이오팜은 증가하는 태반 관련 의약품 수요에 맞춰 국제수준의 공장 및 연구시설 등을 2009년부터 400억원을 들여 2011년 말까지 왕암동 바이오밸리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성 바이오팜과 시공사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하면서 2개월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공사비(1억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이다.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고발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화성 바이오팜은 시공사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사가 중단됐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고 싶지만, 공사비 문제가 얽혀 있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 바이오팜 관계자는 "시공사 대표를 찾아 대금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 현장 곳곳에는 체불임금 정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철 구조물이 녹슨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2009년 6월 착공한 화성 바이오팜 제천공장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양측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1년 말 완공은 물론 제천시의 기업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6>

Copyright © 1991 by CMRI